

교회소식

- 2020년 세광고회 표어는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섬김과 증거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고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충만하게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성경통독표와 시편/잠언 읽기표, 올해 기도제목 용지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섬기는 사람들 명단을 발표합니다.
- 신임 부장님들께서는 오늘 **친교 시간 재정부실**에서 **예결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우동정
김주형 군(김희철 집사 장남)과 여은상 양이 1월11일(토) 오후 4시 세광고회 본당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 교육부
- **1월부터** 학생들을 위한 **세례 및 입교 학습**을 시작합니다.
- 선교부: 2020년 세광고회 단기선교
- 기간: 2020년 2월17일 - 21일(Presidents Day Week)
- 장소: Honduras (최문재 선교사)
- 단기선교 **모임을 1시45분 소예배실**에서 갖습니다.

제20권 1호

2020년 1월 5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

예 배 안 내

English Service	10am / Sanctuary
주일 예배	12pm / 본당
금요 기도회	8pm / 본당
토요 새벽기도	6am / 본당

주 일 학 교

유치부	12pm / 유치부실
유년부	12pm / 유년부실
중·고등부	12pm / 소예배실

섬기는 사람들

1월 안내: 임은도 집사
다음 주 대표기도: 송성현 집사 (시편 29)
이번 주 친교: 이민영 목사, 황인선 사모
다음 주 친교: 최경자 집사, 김민아 집사

기도

“영혼이 잘 됨 같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심령에 들려 열매 맺는 말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직하고 담대하게 선하신 뜻을 구하는 기도
 “범사에 강건하기를”: 교제와 양육이 풍성해지도록
 성도 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R,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거룩과 성령충만. 지혜와 은사. 강건함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이정석(WEC 본부),
 장영호(러시아 미전도 중족),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성경공부 및 모임

창세기 성경공부	TBD
중·고등부 성경공부	금 8pm / 소예배실
새가족 모임	주일예배 후 목회자실
구역 모임	구역별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민영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교회 연락처

(914) 874-3606 / nyskch@gmail.com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Homepage: www.nysekwang.org
 Podcast: 뉴욕세광고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English Service

- <10am> Worship Leader: **Pastor Edwin Kim**
- Opening Praise-----“10,000 Reasons”----- Together
 - *Call to Worship ----- Together
 - *Worship & Praise ----- Together
 - Confessional Prayer ----- Together
 - Apostle’s Creed ----- Together
 - Offering Prayer----- Leader
 - Word of God----- **Psalm 40:1-5**----- Pastor Kim
 - Sermon ----- “**A New Song**”----- Pastor Kim
 - Intercessory Prayer----- Together
 - Closing Praise ----- “You Are My King (Amazing Love)”----- Together
 - *Benediction ----- Rev. Lee

주일 예배

-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 *입례찬송-----1장(통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함께
Opening Hymn Praise God From Whom All Blessings Flow
 - *경배와 찬양 ----- 다함께
Worship & Praise
 - *신앙고백----- 다함께
Apostle’s Creed
 - *찬송 ----- 27장(통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다함께
Hymn Majestic Sweetness Sits Enthroned
 - 대표기도----- 시편 146:5-10----- 서영수 장로
Prayer Psalm 146:5-10
 - 찬양-----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 세광 찬양대
Anthem Sekwang Choir
 - 봉헌기도----- 인도자
Offering Prayer
 - 성경봉독 ----- **히브리서12:2a**----- 인도자
Word of God Hebrews 12:2a
 - 설교----- “예수를 바라보자”----- 이민영 목사
Sermon
 - 인사 및 광고----- 인도자
Greetings & Announcements
 - *찬송 ----- 91장(통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다함께
Hymn Take the Name of Jesus With You
 - *축도 ----- 이민영 목사
Benediction
-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지난 주 주일 말씀

나 여기 있다 이사야 52:3-12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며 황폐했던 땅이 회복 되리라는 약속을 다시 주십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외치고 기뻐하라 하시며, 거룩과 영광의 옷을 입고 포로의 땅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약속과 위로와 명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값없이 팔려간 백성을 값없이 구속하시겠다고 합니다. 값을 따지는 것은 책임을 따지는 것입니다. 누구 탓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과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그 일에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무슨 논리나 정당성을 넘어서서 은혜와 주권으로 댓가를 요구하지 않고 구속하시겠다는 겁니다. 옛날 애굽과 앗수르 때 처럼, 지금도 자기 백성이 범죄해 포로로 끌려간 것을, 하나님 잘못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한 것으로 여기시고 자기 이름을 회복하시겠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된답니다.

사람 사이에도 잘못을 따지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보다도, 함께 책임을 지고 문제를 감당할 때 극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나 선생이 된 사람들은 자식과 제자의 잘못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 책임으로 여기고 돕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자라고 제자들이 지혜를 얻는 겁니다. 약하고 미련한 그대로 스스로 다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 어느 누가 유아기를 벗어나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다 누군가가 경우로 따질 수 없는 은혜를 베풀기에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답니다. 우리의 고난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 여기 있다” 하시며 은혜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전령들이 외칠 기쁜 소식은 물론 포로에서 본토로 돌아오는 것이지만, 진짜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일이 잘된 것 뿐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신 것이, 함께 하신 것이 더욱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러니 포로의 땅에서 스스로 한탄하며 주저앉아 있지 말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고 체념하지 말고 “나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상황과 주변을 탓하며 원망하거나, 자신을 지나치게 자책하려 할 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원인과 결과, 잘못의 댓가, 한만큼 받는 공평함을 훨씬 넘어선 말도 안되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고 역울함이 풀어지고, 절망을 이기고, 고난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았기에 그 구속과 선편과 거룩은 역사 속에 잊혀진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사람에 미친 구원과 은혜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다” 하시는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하지 말고 늘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Memo>